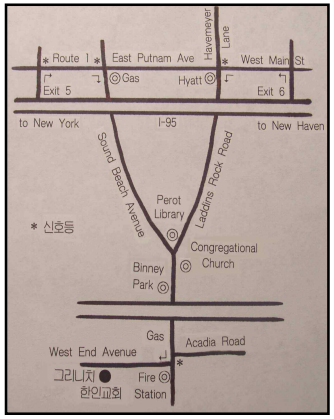
그리니치 한인교회는 커네티컷 남부 그리니치에 자리잡고 있는, 믿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모 임		시 간	장 소	비 고
주일예배	1 부	주일 낮 12시	본 당	말씀 위주로 40분 동안
	2 부	주일 오후 1시	본 당	예배 뒤 점심 및 친교
교회학교	주 일	주일 낮 12:45	교육관	예배 및 성경공부
	주 중	금요 저녁 8시	소예배실	중고등부 리더 훈련
말 씀 과 기 도	말씀나눔	화요 아침 10시	교육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찬양예배	금요 저녁 8시	본 당	찬양, 강해설교, 기도
	기 도 회	토요 아침 6:30	본 당	말씀, 기도, 아침식사



◆ I-95 남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5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우회전 (E. Putnam Ave), 2) 첫 신호에서 우회전 (Sound Beach Ave.) 3) 기차 굴다리를 지난 뒤 첫 신호등에서 우회전 (West End Ave.). 4) 약 200미터 가시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Old Greenwich 건물)

◆ I-95 북쪽에서 오실 때: 1) 커네티컷 Exit 6번으로 나와 램프 끝 신호등에서 직진하고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 (Harvard Ave.), 2) 첫 신호에서 좌회전 (West Main St. Rt. 1) 하고 두 번째 신호에서 좌회전 (Laddins Rock Rd.). 그 뒤는 위의 3) 이후와 같음.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주간소식지 발행인: 담임목사 권수경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637-8743 (203) 829-1595
Homepage: www.greenwichchurch.net
Email: koreanchurch@optonline.net

Stamp Here

TO

사랑 LOVE

그리니치 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주간소식지 Weekly Newsletter
제 11권 42호, 2010년 12월 09일

성탄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도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아이들이겠지요. 우리도 다 어렸을 적 성탄찬양도 많이 불렀고 새벽송을 돈 다음 예배당 난로 곁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에게 뜻 깊은 성탄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종이 사랑지는 곧 종간됩니다. D-1

지난 주간 소식

지난 주간에는 본당이 레스토랑처럼 구조를 바꾼 가운데 **찬양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금요일의 찬양예배는 먼저 찬양 팀 인도로 많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수미 권사님의 대표기도가 있은 다음 로마서 13장을 살폈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에 각각 독립된 주권을 주셨으므로 교회는 국가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국현대사의 보기를 들어 생각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어 여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가진 **기도회**는 찬송 및 대표기도에 이어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으로서 진리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살폈습니다. 우리처럼 흠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우신 은혜도 묵상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고 맥도널드 아침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찬식을 겸한 1, 2부 예배를 드리고 이어 사귐을 가졌습니다. **주일예배**는 많은 찬양을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이어 권 목사님의 목회기도가 있었고 인사도 나누고 교회 소식도 주고받으며 성도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이어 요한일서 말씀을 읽은 다음 권 목사님의 설교 "사랑의 성찬"을 들었습니다. 곧이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하였고 이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찬송을 불렀으며 우리의 감사, 회개, 각오를 담은 기도를 주께 드렸습니다. 이어 주 예수의 희생을 기리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 후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어 헌금을 드리고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한 다음 권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귐의 시간에는 김용범 교우님 가정에서 사랑으로 제공하신 귀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주 안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달에 생일을 맞은 세 사람 (박성권, 권호성, 고선재)을 위한 축하순서를 가진 다음 음식을 먹으며 사랑의 사귐을 가졌습니다. 사무실 옆 교실에서는 세례교육반이 모임을 가졌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실에 따로 모여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본당에서는 이 날도 성가대 및 찬양팀의 연습이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최수온 교우님 인도로 성탄 축하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소식

유년부는 이은파 선생님 인도로 창세기 1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암송한 후, 장학일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헌금 후에 곽희영 어린이의 감사 기도가 있었고, 이은파 선생님의 인도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정말로', '너무 좋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후에 박성민 양재하 두 분 선생님 인도로 분반공부를 하였습니다.

중고등부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어 장 목사님이 로마서 1:18-20 말씀을 가지고 'How Do We Know That God Exists?'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예배 시간이 길어져 분반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1)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복잡해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2) 이 달 셋째 주일 (19일)은 **성탄주일**로, 마지막 주일 (26일)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탄 이브 (24일, 금)에는 예배 및 축하순서를 갖고 올해 마지막 날 (31일) 밤에는 송구영신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3) 오는 주일 (12일) 오후에는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성탄 주일인 셋째 주일 (19일) 오후에는 주일학교 **학부모회의** (PTA)가 있겠습니다.

4) 이번 주에도 금요 **찬양예배**와 토요 **기도회**가 둘 다 모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이 달 사랑방 계획입니다. 시간은 다 오는 주일 오후이며 장소만 다릅니다. 열심히 모여 하나님 뜻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방명	인 도 자	방 장	시 간	장 소
곽방	곽청규 목사	이영자 권사	12일 (일) 5시	교회 교실
권방	권수경 목사	김정아 집사	12일 (일) 5시	권수경 목사 댁
장방	장학일 목사	하영미 집사	12일 (일) 5시	김상범 교우 댁
정방	정진기 장로	장윤정 집사	12일 (일) 4시	교회 교실
한방	한진석 장로		12일 (일) 5시	김주희 교우 댁

6)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특히 이상만 교우님 (천아라 교우님), 박재실 권사님 (박상원 교우님), 김광자 권사님 (지승의 집사님), 이귀애 권사님 (배종순 집사님), 필복덕 권사님 (박석남 집사님), 그리고 심장이식 후 회복 중이신 캐나다의 목정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